

##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10.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 의견 .....	12

## I.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sup>2</sup>	G D P	1,706억 달러(2013년)
인구	89.7백만명(2013년)	1인당 GDP	1,902달러(2013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D)
대외정책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21,016.5(2013년 평균)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1986년 도이 모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섬유·의류제품과 전자제품 수출 비중이 높음.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총리, 국가주석, 당서기장 등 권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금융기관 부실 해소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1995년 ASEAN에 가입한 이후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관련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sup>e</sup>
경제성장률	6.4	6.2	5.2	5.4	5.5
재정수지 / GDP	-2.8	-1.1	-6.8	-5.6	-6.6
소비자물가상승률	9.2	18.7	9.1	6.6	5.2

자료: IMF.

#### □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투자 확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5% 수준 전망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국영기업과 은행부문 부실화 문제로 최근 5%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입, 수출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고 있음.
-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5.2%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은행권의 소극적 대출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통화 평가절하 등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4%로 회복되었음.
-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 및 물가 안정세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5%를 기록할 전망이다.

####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 시현 전망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통화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2년에는 통화량 축소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9.1%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평가절하 조치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도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 소비심리 위축으로 6.6%까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 법인세 인하, 인프라 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 베트남은 소득 증가와 석유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로 세수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인프라와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8%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동 비중이 5.6%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국영기업 개혁은 지지부진

- GDP의 32.6%, 투자의 37.8%를 차지(2012년 기준)하는 국영기업 부문이 무분별한 비핵심산업 진출 등으로 부실화되면서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 국영기업의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상장기업에 준하는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2014년중 지분 매각은 64개사, 비핵심사업 매각액은 3조 동 수준으로 목표(432개사, 22조동)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 열악한 인프라가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81위로, 도로(104위), 항만(88위), 항공(87위), 전기공급(88위) 부문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전국적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배전망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며 운송비 부담도 높음. 특히, 육상운송이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여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비효율 상존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에 따르면, 베트남은 31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77개국 중 중국(80위), 필리핀(94위), 인도네시아(114위)보다 낮은 116위로 평가됨.
- 상당히 잘 정비된 반부패법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규칙 미비로 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부패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3년 10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업 경영여건은 전체 185개국 중 99위 수준으로 평가됨.
- 특히, 사업 개시, 조세납부 관련 절차가 많고 관료주의가 만연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수입관세, 수입수량 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 무역제도 관련 규제가 많고 수출입 관련 실무절차도 복잡한 편임.

#### 나. 성장 잠재력

##### □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

-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소비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2000년 26백만 명에서 2015년 33백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베트남 중산층(연소득 5천~3만5천 달러)은 2009년 17백만 명에서 2020년 56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속 증가로 저임 노동력 풍부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저임노동력의 질이 양호함.
- 고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직업교육 및 전문 학교와 대학교에 공공재원을 대폭 투입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 유치, 부실자산 관리기관 설립 등을 통한 은행 산업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 추진

- 국영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간 지분 교차보유 제도 등 제도적 허점으로 국영기업의 비핵심부문 진출에 대규모로 지원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베트남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훼손되었음.
-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베트남 은행산업의 부실채권(NPL)비율은 2013년말 3.61%에서 2014년 6월말에는 4.17%까지 상승하였음.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는 국제기준 적용시 동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함.
-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 완화, 부실자산관리기관 설립 등을 통해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 및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나, 강화된 회계 기준 적용 유예 등으로 문제 해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SBV는 2014년 1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금 확충 및 은행 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베트남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를 완화함.
  - \* 외국기관: 10%→15%, 전략적투자자: 15%→20%
- 2013년 7월 설립된 베트남자산운용회사(VAMC)는 SBV 감독 하에서 부실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담보매각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본금이 5조 동(약 24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활동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 \* 2013년에 19억 달러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나, 2014년에는 부실채권 매입목표(약 70억 달러)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 부실채권 분류기준을 국제적 수준까지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은행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규정의 시행은 2015년 초로 연기됨.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으로 통화·환율정책을 수행

- 베트남 중앙은행은 경제성장 촉진 및 물가상승률 안정화를 위해 기준 금리인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2011년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SBV는 재대출 금리를 연 9%(2011년초)에서 연 15%(2011.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킴.
-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SBV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재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연 7%로 조정하였고, 2014년 3월에도 50bp 추가 인하를 단행함.
- 수출 촉진 및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SBV는 2013년 6월에 이어 2014년 6월에도 동화 가치를 각각 1% 평가 절하하여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일조하고 있음.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 상 수 지	-4,276	233	9,267	9,471	7,790
경 상 수 지 / GDP	-3.8	0.2	6.0	5.6	4.1
상 품 수 지	-5,136	-450	9,885	8,730	8,378
수 출	72,237	96,906	114,573	132,135	147,016
수 입	77,373	97,356	104,688	123,405	138,637
외 환 보 유 액	12,054	13,128	25,161	25,481	34,899
총 외 채 잔 액	44,922	53,080	59,133	61,846	68,051
총 외 채 잔액 / GDP	39.8	39.4	38.0	36.3	36.4
D. S. R.	2.1	3.6	4.1	3.8	3.3

자료: IMF 및 EIU.

□ 수입수요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1% 시현 전망

- 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베트남의 상품 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가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됨.

- 2012년에는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전자 및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6.0%로 상승하였음.
- 2013년에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을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외국인투자유입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87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84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시현,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전망

- 2012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25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5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거시경제지표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법인세율 인하 등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8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투자유치 정책 유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등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자유무역지대 확대 노력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11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349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1년 지도부 교체 시 불협화음은 없었으며, 향후 지도부 교체는 2016년에 예정되어 있음.
- 당서기장은 보수파인 응웬 푸 쯡,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쯔영 썬 상이 선출되었으며, 총리는 개혁파인 응웬 썬 중이 유임되었음.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민주적 절차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베트남 공산당은 언론 통제 강화, 인터넷에 대한 규제 신설, 유명 반체제 블로거 체포 등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 사회동향

#####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니계수와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각각 1999년 0.39, 7.6배에서 2010년 0.43, 9.2배로 확대되었으며, 전국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7.2%, 도시 지역은 5.4%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22.2%, 소수민족은 59.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베트남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1995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 7월 미-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발표되었음.
- 2010년 베트남-미국 간 군사정책대화가 최초로 개최되고, 2012년 미국 국방장관이 베트남 방문시 양국 군사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국간 군사관계 역시 긴밀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정치범·종교인에 대한 억압,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취약한 베트남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관계 강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 반중시위 확대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표출로 대중 관계 악화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이나 베트남은 국경 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음. 2009년 중국과 육상 국경선 확정을 마무리 하였으나, 해상 국경의 경우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임.
- \* 분쟁지역: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및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자체에 대한 영유권(중국 정부의 9개 점선을 연결한 소위 'U자형 수역' 내 영유권)
- 중국 해군선박의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 절단, 분쟁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나포 및 발포에 이어 2014년 5월 중국이 분쟁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개시하자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확대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었음.
- 2013년 6월 중-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적극적인 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반중 시위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 ASEAN 국가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

- 베트남은 1995년 ASEAN의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0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음. AFTA 발효 및 2015년 ASEAN 경제 공동체(AEC) 발족 추진 등 ASEAN의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양허성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로 D.S.R.은 낮은 수준

- GDP 대비 외채 비중이 2010년 3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36.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외채의 절반 정도가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2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2014년 6월 CRE(Country Risk Expert) 회의에서 국영기업 개혁과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 지연 등을 감안하여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5등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S&P는 2010년 12월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Fitch는 2010년 7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물가상승률 둔화,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S&P는 2012년 6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Fitch는 2014년 1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2014년 7월 Moody's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경상수지 개선, 은행 부문의 위험도 경감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 국가신용등급을 B2에서 B1으로 상향 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4. 2)	C1 (2013. 7)
OECD	5등급 (2014. 6)	5등급 (2013. 6)
S&P	BB- (2012. 6)	BB- (2010. 12)
Moody's	B1 (2014. 7)	B2 (2012. 9)
Fitch	B+ (2014. 1)	B+ (2010. 7)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인수 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2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2003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베트남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3,465	15,946	21,088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 입	5,084	5,719	7,175	의류, 원유, 신발, 목재류
합 계	18,549	21,665	28,263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는 2009년 9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28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14년 8월말 기준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9%, 수입액은 9.9% 증가하여 2014년에도 교역규모 확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베트남 해외직접 투자는 2014년 6월말 기준 3,278건, 10,537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V.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5.4%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전년도 9.1%에서 크게 하락한 6.6%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5.6%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법인세 인하, 지출 확대로 6.6%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업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2013년과 2014년 모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하면서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GDP 대비 외채 비중이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36.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외채의 절반 가량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최근 3%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